

#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단속·처벌 강화한다

### 광주·전남 코로나에 배달 늘어 지난해 사고 1469건·사망 55명 변호판 인식 장비 단속 기대감 소음 허용기준 개정안 발의도

‘코로나19’ 여파로 도심에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증가로 사상자도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가 도심 속에서 주야간 가리지 않고 소음을 발생하고 있어,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광주와 전남지역 이륜차 사망자수는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 건수는 1469건으로 집계됐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2만 3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 1714건에서 지난 2020년 2만 9654건으로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가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8년 8.1%에서 지난해 10.1%로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그 동안 이륜차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발대식 26일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발대식'에서 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하는 소형 무인단속장비가 개발돼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밤 늦도록 굉음을 울리며 돌아다니면서 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 기준을 대폭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지난 8월 광주경찰과 자치구, 한국교통공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선 현장에서 동네가 떠나갈 듯 울려대는 굉음 오토바이 단속은 한 대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굉음을 냈지만 소음측정 기준인 105dB을 넘어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는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어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오토바이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안도진도)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동아시아 국가폭력과 재현, 연대

전남대 5·18연구소 29일 국제학술대회

전남대학교가 ‘동아시아 국가폭력과 재현, 연대’를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1시 인문대학 김남주 홀에서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가진다.

전남대 5·18연구소가 2·28사건기념기금회, 훗카이도대 동아시아미디어연구소 등 협약 기관들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각국이 경험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양한 재현과 전유 방식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성찰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신성화와 상품화의 양상: 5·18민주광장의 의미와 상징의 문화정치학(박경섭, 전남대 5·18연구소) ▲‘타이완 청년사’의 2·28 사건에 대한 관점과 토론(위페이전, 2·28사건기념기금회) ▲1980년대 일본·대만 기독교의 민주화를 향한 연대(후지노 요헤이, 훗카이도대학) ▲중국에서 본 5·18 민주화운동(윤순천, 전남대 5·18연구소)이 발표된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와 일·한 언론인·시민의 연대(오다가와 코우,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소) ▲탈식민과 다국적 과거사 청산(전자하오, 2·28사건기념기금회)의 논문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 참여는 전남대 5·18연구소 공식 유튜브(<https://bit.ly/3E1G0EM>)를 통해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탐구 꾸러미 받고 온라인 과학축전 참여해요

전남교육청 내달 1~19일

전남교육청이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전남과학축전을 개최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즐거운 과학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축전은 전남도와 공동 주최하고, 전남 지역 과학 교사 연구회인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며,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후원한다. 이번 축전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돼 비대면 체험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선정된 학생들에게 직접 배송되는 ‘탐구꾸러미’를 동영상에 탑재된 홈페이지에서

따라 하는 방식이다.

과학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가족이나 학급별, 동아리별로 활동한 결과물을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발표 영상으로 제작해 탐구대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온라인 과학축전을 통해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공유·협력하면서 미래사회 경쟁력 있는 과학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조선대병원 ‘영양집중지원’ 인증 획득

조선대병원이 최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KSPEN)에서 실시하는 영양집중지원팀(NST)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영양집중지원팀 활동의 활성화 및 표준화를 통해 환자 치료와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의료질 향상을 위해 영양집중지원팀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영양집중지원팀은 영양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로 구성돼 있으며, 정상적인 영양섭취가 곤란한 환자에게 영양 평가 및 지원방법 등 치료 계획을 세워 관리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속한 질병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영양집중지원위원회 김경중(외과 교수) 위원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연구를 통해 최상의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떡·보자기 만들기 체험

광주 남구 오늘부터 접수

광주시 남구가 전통음식 만들기에 참여할 가족들을 모집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27일부터 ‘떡&보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 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떡&보 체험은 가족이 함께 수박 설거지를 비롯해 티 설거지, 양근 플라워 컵 케이크 만들어 보자기를 활용한 아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구 봉선동 청소년도서관 지하 1층 남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체험 참가는 남구 문화교육행사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지원과(062-607-243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독거 장애인에 힐링키트

광주 북구, 마음건강 치유 도움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심신안정을 위해 1인 가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힐링키트’를 지원한다.

이번 힐링키트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두 번째 추진하는 것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재가 장애인 400명에게 이달 중에 전달된다.

스마일공, 편백향 주머니, 쿠키세트, 수제정 및 점 등으로 구성된 키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오감키트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주민들의 마음과 건강 회복에 위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2021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린 자전거 축제

## 11월 20일(토) 영산강 일원

**장소**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극락교) **참가비** 전 종목 무료

**종목** 자전거대행진 **접수** 062-376-3112(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4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 → 나주대교 → 빛가람대교 → 영산교 → 영산대교(유채광장/반환) → 영산교 → 빛가람대교 → 나주대교 → 승촌보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2시 40분까지(3시간)
-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2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반환)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1시 10분까지(1시간 30분)
- 신청**: 사전 전화접수
- 참가자준비물**: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 자전거대행진 당일안내** (마스크 착용)
  - 참가자접결시간: 오전 9시까지(출발선 대기)
  - 장비점검(배변 등 부착물 체크): 오전 8시~9시
  - 출발시각: 오전 9시 40분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번호를 부착한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응급조치 및 보험 보상규정 한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개인 지병, 혈압, 당뇨, 과로, 심장질환 등)를 고려하여 참가신청 및 개별 상해보험 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 광주일보 ·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 | 주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후원 | 광주광역시